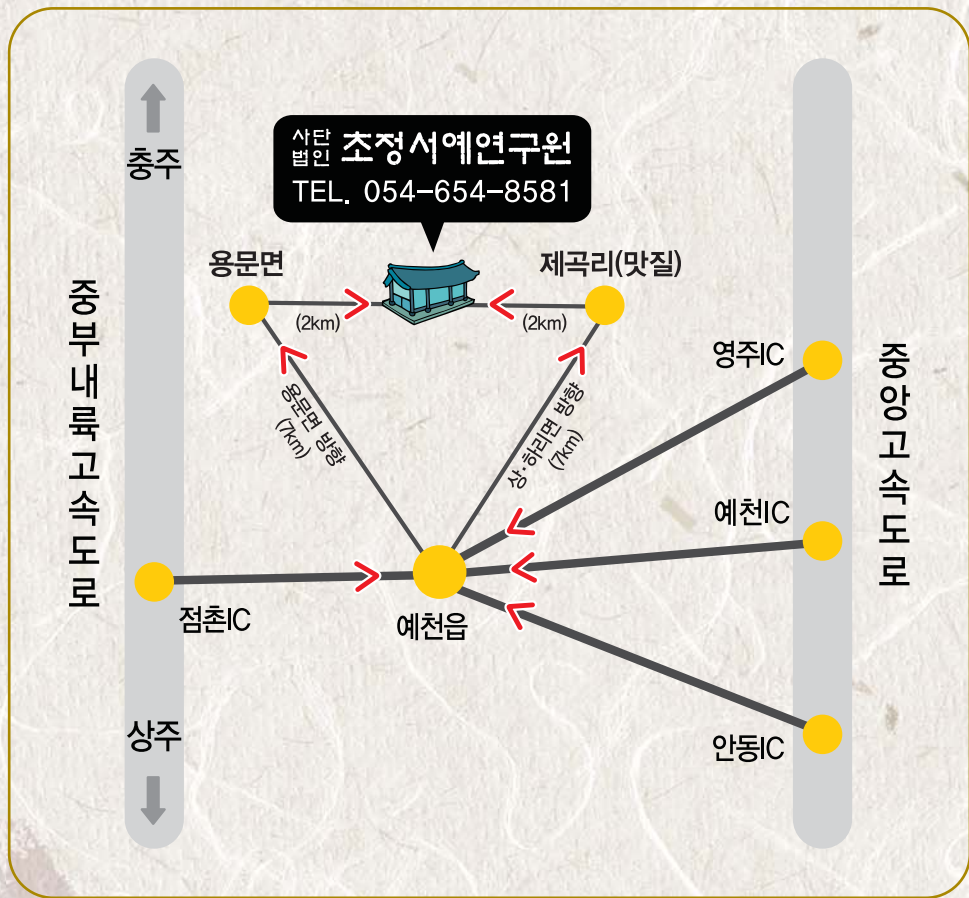


「초정서예연구원」 개관 2주년 및 2012 예천 곤충 바이오 엑스포 기념

2012년 전국학생 서예대전 (휘호대회)



찾아오시는 길 『초정서예연구원』 경북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326번지

휘호대회 일정

- 일 시: 2012년 6월 9일(토) 13:30
- 장 소: 『초정서예연구원』 (경북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소재)
- 주 최: 예천군청 (문의: 054-654-6396)
- 주 관: 『초정서예연구원』 운영위원회
[문의: 054-654-8581, 사무국장 박근노 010-3483-4766]
- 후 원: 경상북도, 대구시, 군포시, 경상북도 교육청, 예천교육지원청, 경북미협, 예천미협,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 대구일보, 예천인터넷뉴스



2012년 전국학생 서예대전 (휘호대회)

우리나라 서예의 중심 『초정서예연구원』의 개관 2주년과 "친환경 곤충의 고장" 예천에서 2012년 예천곤충엑스포 행사를 기념하고, 미래 한국서단의 주역이 될 인재를 발굴하고자 『전국 학생서예(휘호)대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대회 요강

- 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대학생
- 휘호서체: 한글·한문
- 작품규격: 초등부(화선지 ¼절), 중학부·고등부·대학부(화선지 ½절)
- 서제: 사전 발표/글씨체는 자유 선택
- 화선지: 행사당일 주관처에서 배부하는 검인된 화선지만 사용가능함.
- 준비물: 붓, 먹, 연습지, 문진, 연적, 참고지전, 담요, 돗자리 등
- 현장 휘호에 필요한 문방사우는 본인 일괄지참

2. 참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2년 4월 5일(목) ~ 5월 15일(화) / 공휴일 접수가능
- 신청서교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에서 내려받음
- 접수처: 757-843, 경북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326번지 『초정서예연구원』
- 접수방법: 우편, 전화(054-654-8581), 팩스(054-653-8581), 이메일(ddv3365@nate.com), 방문접수

3. 심사발표

- 현장휘호 후 10일 이내 일간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에서 발표
- * 심사위원은 국내 저명작가로 위촉

4. 시상내역

- 대상: 전체 1명/경상북도지사 상장 [상금 일백만원]
- 최우수상: 4명/부문별 1명/경상북도교육감 상장 [각, 상금 오십만원]
- 우수상: 8명/부문별 2명/예천군수 상장 [각, 상금 삼십만원]
- 특별상: 4명/대구시장 상장 등 [각, 상금 이십만원]
- 장려상: 12명/부문별 3명/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상장 [상품]
- 가작: 약간명/초정서예연구원장 상장 [상품]
- 특선: 참가자의 20%/운영위원장 상장
- 입선: 참가자의 30%/운영위원장 상장
- 우수지도자상: 4명/상장 등 [각, 삼십만원]

* 시상내역은 주관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식 및 입상작품전시

- 시상식: 2012. 7. 28(토) 『초정서예연구원』 * 시간은 별도 공지
- 전시기간: 2012. 7. 28(토) ~ 8. 19(일) 23일간 / 『초정서예연구원』 전시실

서제 ※ 서제 中 택 1

구분	한글	한문
초등부	대한민국 곤충나라	出天之孝 免天之災 하늘이 낸 효자는 하늘의 재앙을 면한다. (孝子 都始復 也溪實記)
	대한민국 충효예천	賣炭買肉 無闕母饌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의 반찬을 빠지지 않게 하였다. (孝子 都始復 也溪實記)
중·고등부	대한민국 충효고장 자연사랑 곤충예천	都氏家貧 至誠至孝 賣炭買肉 無闕母饌 도효자는 집이 가난하여도 지성으로 효도함에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 상에 고기반찬이 빠지지 않게 하였다. (孝子 都始復 也溪實記)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아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기리 없을새 글노 설위 하노라 (박인로)	步出前溪上 投竿坐石苔 日晡魚不食 收釣獨歸來 앞 시냇가에 나아가 이끼 낀 돌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우니 해가 저물도록 고기가 물지않아 낚시 거두고서 홀로 집에 돌아왔다 (草澗 權文海 偶吟)
대학부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무쇠 기둥에 꽃 피여 여름이 여러 따드리 도록 누리소서. 그 빛과 억만세 외에 또 만세를 누리소서.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	捐佩千尋碎 施紈百尺新 有蛟能濟物 潛躍術何神 패옥 떨어져 천길 아래 부서진 듯 흰 비단 백 척이나 드리 운 듯 폭포 속 교룡이 만물을 구제하느라고 잠겼다 솟구치 는 조화 어찌 그리 신비한고? (尹祥 龍潭瀑布)